묵상 코너

"잘 자, 내 꿈 꿔^^" *무심결에 "하나님, 나 잠 좀 잡시다!"라고 했다.*

이십 대 중후반쯤 친구의 부탁으로 한 언니의 결혼식 반주를 해주었다. 그렇게 알게 된 연수 언니는 고맙다며 잊을 만하면 내게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 언니가 내게 예수님을 믿냐고 물었다. 그때까지 내 주위에는 크리스천이 거의 없었다. 급할 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크리스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반감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무조건 싫었다. 또 신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는 인생의 패배자'로 치부하기도 했다. 언니에게 "나는 교회에 안 다녀"라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 언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모임에 오라고 설득했다. 나는 언니와의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 "언니, 앞으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않는 게 언니의 이미지 관리상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곤 했는데, 그 연수 언니가 번뜩 떠오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삼십 대에 접어들어 나름 친하다고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때 연수 언니가 연락을 해왔다.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대뜸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언니에게 당시 처한 상황을 얘기했다. 언니가 말했다 "네가 아는 사람이 백 명쯤 있다면 그중에 한 명이 그런 것인데 왜 잘못 살았다는 생각까지 하니? 내가 너를 아는데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언니의 이 말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러나 몇 달 후 계속 괴롭히는 그 지인과 관계를 확실히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하려고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가서 문자 내용을 문서로 받아왔다. 모든 걸 참고 잘 잊고 지내다가 문자메시지 한 통에 온 신경을 빼앗겨 사흘이나 잠을 설쳤다. 더 이상 잠을 못 자면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무심결에 "하나님, 나 잠 좀 잡시다!"라고 했다. 다음 날, 고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저장해 놓은 문자 내용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놀라서 서비스센터로 달려갔다.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듣더니 확인하기 위해 문자 내용이 담긴 용지를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시 나올 때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고객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다.휴대폰에는 "잘 자, 내 꿈 꿔^^"로 문자 내용이 바뀌어 있었는데, 기계로 다시 뽑으니 고소하기로 한 내용이 다시 그대로 나왔다. '아니, 사람이 아니면 귀신이라는 거야?' 갑자기 전날 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스쳤다. '설마, 미칠 것 같아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외쳐본 건데....' 내가 급할 때마다 찾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연수 언니를 따라 두어 번 교회 모임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었다. 처음 한두 번은 너무 흥분이 되었다. 문자로 이모티콘까지 섬세하게 보내오는 그 하나님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성경을 읽을 자신도 없고 너무 바빠서 모임을 통해 쉽고 빨리 모든 걸 알길 원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모임에 갈 때마다 '부활'만 얘기했다. 시간이 아까운데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 같아 답답했다. 나는 속으로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유일신이라면 부활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뭐 그리 대수야?'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표적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았지만 당시는 세상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살았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는 큰 짐으로만 여겨졌다. '차라리 몰랐으면 살던 대로 즐겁게 살 텐데.... 이제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에 다닐 시간은 없고... 이러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건 아닐까?' —천정은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중에서—

남부뉴저지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Jersey

SUNDAY SERMON SERIES

주 일 설 교 시 리 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삶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6권 26호 2020년 7월 5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 사회: 기우석 집사

경배와 찬양 (Praise) — One Thing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이건형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s) — 사회자

부모의 축복 (Parental Blessing)

봉헌 (Offering) 71장(새찬50장) 1절 —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박태열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사도행전 2:42-47

설교 (Sermon) — 설교: 박태열 목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RESET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네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성찬예식 (Holy Communion)

파송찬양 (Closing Hymn) 마지막 날에 —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 박태열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 10am
온라인 10am
주일학교 / 10am
중고등부예배 / 10am

[주중예배/모임 안내]

새벽예배 / 5:30am(화-토)
수요성경공부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한국학교 / 3pm-6pm(토)

[정기기도모임 안내]

남선교회새벽기도모임 / 5:30am (매달 첫째주 토요일)

선교부기도모임 / 7pm(매달 둘째주 화요일)

[다음주일 대표기도]

5340 White Horse Pike, Egg Harbor City, NJ 08215 Tel: 609-965-1222 www.nambuNJ.org

교 회 / 교 우 소 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수요성경공부가 7월 1일(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원리: 1. 세상의 역사 속에서" 라는 주제로 박태익 목사님께서 줌미팅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컴퓨터나 셀폰에 줌미팅 (ZOOM Cloud Meeting) 엡을 설치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속장님들을 통해서 줌미팅 정보를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부 서 별 소 식

[임원회]

6월 30일 저녁 임시 임원회 모임을 줌을 통해서 가지고 예배팀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의한 후 아래와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예배를 볼수 있는 인원수가 100명까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원수의 제약으로 인해서 1부와 2부 예배를 드렸던 것을 **7월 첫째 주일인 7월 5일부터 하나의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점심친교가 없는 관계로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될때까지 **주일예배를 아침 10시에 드리도록 합니다.** (11시가 아닙니다) 특별히 임원회에서 예배팀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4주동안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릴수 있도록 1부와 2부예배로 섬겨주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임원회 드림

[예배부]

-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수 있도록 YouTube로 생중계 합니다.** YouTube 생중계 링크는 주일 아침에 속장님들을 통해서 각 속회에 카톡으로 전달합니다.
- 주보는 속장님들을 통해서 토요일 오후에 각 속회에 카톡으로 전달됩니다.
- 주일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헌금봉투가 각 가정에 우편으로 전달이 됩니다. 주일예배때 가정에서 헌금시간에 헌금을 거둬어서 월요일에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요. **Check는 "KUMC of SJ" 라고 쓰시면 됩니다.** 헌금봉투를 못 받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월 중 모 임 / 행 사

[선교후원]

- 주파송 선교사인 황요엘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황요엘 선교사"**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협력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협력선교사 가정인 신현재 선교사, 강지혜 선교사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신현재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지 난 주 일 통 계

헌금총액	**$3,327**	**출석총인원**	**61**
십일조	$1,877	KM 1부예배	14
주정(주일)	$430	KM 2부예배	14
감사헌금	$	온라인예배	24
선교헌금	$430	유스예배	6
주일학교	$	주일학교	3
제단헌화	$	Love Sonata	$590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남부뉴저지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월 친 교 / 헌 화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중고등부간사: Rebecca Henry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성은지
시무장로: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주파송선교사: 황요엘: 이국
협력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기쁨,거룩): 사국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진서,진후): NY 켐퍼스
신현재 강지혜: 도미니카공화국